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강절 제4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기다리는 이들처럼 우리는 들뜬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빈자리에 주님의 숨결이 머물기를 기다립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낙엽처럼 스산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햇살처럼 포근하게 내려앉기를 원합니다. 세상일에 분주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조용히 엎드리어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 천년 전 말울음소리 황량한 말구유에 가장 순결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듯이, 지금 더 가질 욕심과 더 높아질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의 마음에도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평화의 꿈조차 무색케 하는 이 폭력의 세상에서 사랑만이 영생의 길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요16:33	인도자
♠ 교 독 문	56. 대강절(2)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최성애 집사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다함께
성경봉독	마1:26-38	인도자
	빌2:5-11	백혜숙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은혜를 받은 자여	김기석 목사
	케노시스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 현신의 찬송 10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다함께
- 헌금봉헌 <성가대 중창단>..... 다함께
-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허영심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가슴에 환한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이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웃들과 세상에 복이 되게 사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음의 의미를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힘겹더라도 삶은 기적의 연속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갈라져 새기만 하는 썸을 파느라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제 우리를 고쳐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탄절기에 함께 보는 가족영화	신명기강해(25)
책상 서랍 속의 동화 (감독:장예모)	기도 : 곽혜자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조관행 집사 이용한 장로	인도자 최성애 집사

12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인걸 오진훈 임창선 허정윤 정경례
	헌금위원	이용한 방문성 김중수 구성실 이기분 박혜경

햇살 속에 반짝이는 저 몸짓들

눈뜨는 감나무 새순들이 위험하다 알고 보면 그 밀고 나오는 힘이 억만 톤쯤 된다는 것인데 아기를 낳은 여자, 그 죽음의 직전, 직전의 직전까지 닿아 있는 힘과 같다는 것인데 햇살 속에 반짝이는 저 몸짓들이 왜 저리 연하디 연할까 다를 게 없다 가장 힘센 것은 가장 여린 것을 겨우 만들어 낸다 억만 톤의 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처음부터라야 완벽하다 위험하다.

—정진규, <감나무 새순들(알33)>

나는 감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에 살면서 감나무의 새순들이 나오는 것을 자주 살펴보았습니다. 감나무 새순은 다른 나뭇잎들보다 늦게 핏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새순들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 여리디 여린 연둣빛 새순들이 위험하다니요. 아이들의 고사리 손으로 툭 치면 맥없이 꺾어지고 말 새순들이 왜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위험이란 말은 ‘힘’과 관련됩니다. 단단한 껍질을 뚫고 새순을 밀어내는 힘 말입니다.

그 힘, 곧 그 에너지는 아이를 낳는 여자가 자궁 밖으로 신생아를 밀어낼 때, 그 죽음을 무릅쓴 신산辛酸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인데, 시인은 그것을 수치로 표시하여 ‘억만 톤쯤’ 되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거의 불가능한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위험한 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위험한 힘이 모든 알에 내재해 있습니다. 순수생명의 실체인 모든 알들은 시인의 촉각에 위험하게까지 느껴지는 그런 신비한 에너지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나무의 몸에서 태어난 새순이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모두 이런 신비한 에너지를 내장한 ‘알’에서 위험하게 생겨난 생명들입니다. 존귀하다는 단어가 빛바랄 만큼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끼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인을 더욱 경탄하게 하는 것은 ‘억만 톤쯤 되는’ 그 위험한 힘으로

떨어내어진 새순들의 몸짓입니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저 몸짓들이 왜 저리 연하디 연할까

의문사가 사용되지 않는 이 의문문의 시구에서 우리는 감동에 겨워 축축이 젖는 시인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는 듯합니다.

단단한 것, 굳은 것, 강한 것들이 울끈불끈 그 힘을 뿜내며 생명의 산하山河를 유린하는 세상에 몸담고 사는 시인이기에, 연하디 연한 새순들의 몸짓이 더욱 가슴 저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연한 몸짓의 떨림을 몸으로 겪었기에 시인의 뇌리에는 이런 잠언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가장 힘센 것은 가장 여린 것을 겨우 만들어 낸다

이 시구의 강조점은 ‘겨우’에 있습니다. 연하디 연하고 눈부신 생명의 출현은 억만 톤쯤의 힘으로도 ‘겨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생명이든지 생명의 출현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통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을 얼마나 함부로 대합니까. 첨단문명과 지성의 확장으로 밝아진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생명에 대한 꺾박은 여전합니다. 그 엄청난 힘으로도 ‘겨우’ 빛어진 생명인데, 현대인들은 생명에 대한 존엄과 외경을 잃어버린 듯이 보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말합니다. “억만 톤의 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여기서 억만 톤의 힘이 지시하는 것은 그 힘을 내장한 알, 더 나아가 그 알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입니다. 둥근 모양의 알은 작디작고, 그 알을 있게 한 존재의 근원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시인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그 보이지 않는 실재를 향해 눈길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물론 시인은 그것을 암시만 할 뿐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명령은 시인의 몫이 아니니까요.

—고진하, 《이 아침 한줌 보석을 너에게 주고 싶구나》 중에서

* 세상의 모든 힘으로도 가장 여린 것을 ‘겨우’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라는 시인의 통찰이 성탄절기를 맞는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알몸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빈방은 마련되었는지요?

형제에게 권하노니

이제 나는 나의 형제에게 권하노니 너는 아무 것도 되려 하지 말지어다. 네가 무엇이 되어 필요할지—아니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도 세우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벌써 너에게 대한 충분한 설계와 심산이 있었나니, 너는 다만 전체를 그에게 맡기고 다만 그가 부절(不絶)히 너에게서 일하시기만 기다릴 것이었나니라.

주께서 충분히 주무르시어! 무엇이든지 너는 되지 아니치 못하리니, 그 때에 무슨 일들이 명명될지 알 자가 없었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될지 알지도 못하는 흠덩이를 갖다 놓고 스스로 이름을 지어 붙여 가지고 나는 이것이 되겠다 하는 자여! 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임을 알지 못하겠는가. 너는 될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하나 되리라.

주께 완전히 맡겼으면 주의 그 정신을 나타낼 무슨 그릇 하나는 분명히 될 것이니라. 혹은 목사, 장사꾼, 직공, 걸인, 미치광이, 전도자, 아무개 아버지, 혹은 아무개 어머니, 최권능, 무교회주의자, 이단자……그 외에 많은 이름!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너에게 오는 이름 하나를 허락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이용도 목사)

* 우리 어법에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진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삶이 예배가 되겠지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윤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방현복 이부방 윤석철 장해숙 한상익 정영선 방문성 박해경 박창운
 허정윤 이한림 김명희 노정숙 이봉옥 최종원 김혜권 박영희 고사일
 최영선 박두석 이건화 김종두 왕성한 강순배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유증희 이재문 김홍기 김창원 정지은 최윤희 황원순 황자순 전영규
 김경수 이갑재 김정섭 전영자 정진경 허광식 임원민 임수연 남현우
 김은진

감사헌금:

문금석 조항범 오현정 최인환 고사일 최영선 왕성한 강순배 고정철
 염혜영

생일감사헌금: 장숙자 서정순 박민선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침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은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속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속		
나 사 렛	백 혜 속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2·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3. **성탄행사** : 24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탄맞이 행사를 하고, 25일에는 오전 11시에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 헌금은 전액 불우한 이웃들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4. **아름다운 원로모임** :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올해 마지막 모임을 갖습니다. 좋은 사귄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5. **달력** : 2005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6. **연말정산** :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무부에 신청해주십시오.
7. **특별새벽기도회** :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석하던 이들은 감사함으로,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갈망하는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8. **헌화 신청** : 내년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화하실 분들은 뒤에 있는 신청서에 내용과 함께 기입해주십시오.
9. **신앙실천** : 다소 소원했던 이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성탄의 종소리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의 파문을 일으키십시오.

* 헌화 : 윤주원 최윤선 집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